

동신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개소식

100회 맞은 MBC에브리원 '무한걸스' 연출 광주 출신 양현석씨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소(소장 강임철, 디지털콘텐츠학과)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영호 부원장,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김기훈 원장 등 문화콘텐츠 분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광신대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 열려



광신대학교는 지난 12일 교내 콘서트홀에서 126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7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광주도시공사 '업무혁신 임직원 특별 교육'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지난 14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사의 조직변화, 업무혁신, 고객만족, 청렴도를 내용으로 '임직원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택시강도 살인 피의자 검거 유공자 표창



유근섭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4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택시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박기운 순경 등 2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박중재(전남여고 교장)·김자정씨 장남 수영군 김상기·조영애씨 장녀 희정양=19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신인텔빌리 4층(메도리스홀) ▲고무석·여명자씨 장남 영준(바오로)군 윤재선(공전제과 대표)·서덕성씨 장녀 해라(안나)양=20일(일) 낮 12시30분 호남동 성당.

동창·동문회

▲조대부고 제15회 동창회(회장 장흥수) 월례회=15일(화) 오후 6시 30분 임동(후선아) IC 3층 15회 동창회 사무실. 062-523-0015. ▲복성중 제15회 동창회(회장 강일영) 월례회=15일(화) 오후 7시 삼희불나(총장조 5가) 062-225-

3233.

▲복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박형택)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광희네 식당(서구청 맞은편) 062-352-8778. ▲재광 전주상고 동문회(회장 서동철)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무안별나지(풍암성당 아래) 062-653-9248. ▲대동고 제1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9일(토) 오후 6시 신양파크호텔. 011-629-273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해천 재광 영광군 향우장학회(이사장 이형만) 창립식=25일(금) 오후 6시 복구 동림동 해천빌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사)남도사랑나무=남도사랑나무 이사장 윤기선 핀란드 교육 시찰자 15일 출국. 062-222-7115.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임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모집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침술·침·무황,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동구청 보건 소건물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복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다이어트 계모임 회원 모집=월 2회 모임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35~55세 일곡·상무·문흥·봉선·첨단지구 선착순 6명. 010-2425-440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금호아시아나 후원 박혜윤 민현 콩쿠르 우승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17)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제58회 민현 ARD(독일 공영 제1방송) 국제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했다. 박혜윤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민현에서 열린 결선에서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현대 작곡가 코플랜드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 상금 1만유로가 주어지는 1등을 차지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영재 출신의 박혜윤은 2001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며 바이올린 신동으로 떠올랐으며,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신시내티대 음대에서 수학했다. /연합뉴스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10개월만에 100만부

"엄마를 부탁해"를 내고 독자들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독자들이 오히려 작품을 쓴 것 같고, 저는 독자처럼 듣고만 있을 때가 많았어요. 독자들이 저보다 훨씬 할 말이 많은 이상한 작품이었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제게도 소중한 행운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간돼 독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으로 받으며 '엄마 신드롬'까지 낚은 신경숙(46) 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창비)가 출간 10개월 만에 100쇄, 100만 부를 돌파했다. 매달 10만 부 가량이 팔린 것으로, 국내 순문학 단행본으로는 최단 기간 100만 부 돌파기록을 세우게 됐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10여개 국의 독자와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 초 무대에 올릴지는 연극을 비롯해 영화와 뮤지컬 등으로도 관객을 찾아간다. /연합뉴스



“PD라기 보다는 ‘봉선엄마’로 더 유명해요”

“‘무한도전’과 비슷하지만 그녀들만의 끼와 재치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무한걸스’는 시청자들이 지켜봐서 채널을 돌릴 때까지 계속 제작할 겁니다.”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무한걸스’의 연출자인 양현석(사진) PD가 지난 11일 프로그램 100회를 맞아 광주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광주 인성고를 졸업한 양 PD는 “‘무한도전’의 인기를 업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지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6명의 멤버가 그야말로 팔팔 똘똘하다”며 “지난 2년간 거의 모든 스텝이 바뀌지 않고 함께하면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100회까지 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무한걸스’ 촬영장에는 특별한 대본이 없다. 이런 호흡은 첫 회 프로그램을 함께 맡은 양 PD와 조동원 PD가 여전히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 채널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100회까지 방송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특히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케이블 리얼버라이어티 흥수 속에 ‘무한걸스’는 2년 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다. 케이블 TV 시청

률로는 이례적으로 2%를 기록하는 등 흥행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초반에는 ‘무한도전’의 ‘아류’라는 말도 들었고, 지상파 TV의 인기 아이템을 케이블 위성 채널에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송은이를 포함한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동화패몰을 사리지 않았고,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시청자들도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 봉사활동 편이 방송된 후 멤버들이 직접 미용 기술을 일주일 가량 배운 후 원주민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줘 큰 호응을 얻었어.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뭔가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지 않아요.”

‘무한걸스’ 방송이 끝난 후 엔딩 자막에 양 PD의 이름 대신 ‘봉선엄마’라는 별칭이 나간다. 신



‘무한걸스 필리핀을 가다’ 편에서 황보·송은이 등 출연자들의 봉사활동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양현석 PD(맨 왼쪽).

봉선씨가 방송 도중 “양 PD님 우리 엄마랑 닮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봉선엄마’라는 별칭을 쓰기 시작한 것.

양 PD는 “케이블 TV이다 보니 제작비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순수 스텝 집

도 날라주는 등 격의 없는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 100회까지 온 것 같다”며 “앞으로는 케이블이나 공중파 방송에서 시도되지 않은 특별한 도전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강필광기자 kps@kwangju.co.kr

‘시민 일일명예역장’ 위촉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상무역 등 17개 역의 ‘시민 일일명예역장’에 전주인 서구청장, 정영철 남광교회 목사 등 각계 인사 17명을 위촉했다.



지병문 전 국회의원 책 펴내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병문(사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국회 의정 경험을 담은 책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를 펴냈다. 지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정치 과정과 현실을 기록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국회 입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감나고 흥미로운 국회 정치 이야기를 담았다. 출판기념회는 16일 오후 5시 전남대 치과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2009 지도자 대회’ 개최

박영희(사)전국주부교실 광주시 지부 회장은 17일 오후2시 아모레퍼시픽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를 주제로 2009 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천창석 부안성모병원 이사장

조선대에 발전기금 3억 기탁

천창석 부안성모병원 이사장이 14일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3억원 을 기탁했다. 이 기금은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의화전문대학원 임상수기센터 신축 기금으로 쓰인다.

조선대 의대 출신인 천 이사장은 부안해성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한 것이 인연이 돼 2003년 300병상 규모의 부안성모병원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노인전문병원인 부안효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부안지역 주민 무료진료, 조손가정 후원, 홀로 사는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선정을 실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I won't slow down twice) with contact number 1566-4499.